

사회

광주 연평균 기온 100년새 2.1도 ↑

전국 6대 도시 평균 상승폭의 1.4배

광주의 연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2.1도 상승해 전국 6대 도시 평균 기온 상승폭(1.5도)에 비해 1.4배(0.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국 대도시 평균의 기온차인 0.6도 정도의 온도가 상승하는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속도인 2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린다.

광주의 가파른 기온 상승은 최저기온 상승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현재 약 80일인 겨울이 2100년이 되면 아예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류찬수 조선대 과학교육학부 교수가 연구책임 맡아 출간한 '지역기후변화보고서(광주·전남·전북편)'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해 발주한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 기후변화보고서 발간 사업에 따라 출간된 것으로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 변화과정, 미래의 기후 예측 결과, 산업에의 영향 등의 자료를 담은 백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연평균기온은 지난 76년(1935~2010) 동안 1.6도 상승했으며, 100년 기준으로는 2.1도 상승해 지구평균(0.74도/100년)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최저기온이 더욱 빠르게 상승해 일교차가 줄어들어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수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여름철 강수의 집중률이 높아 호우와 수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여름철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북포의 경우 1920년대에는 여름철 115일·겨울철 77일에서 1990년대 여름 124일·겨울 68일, 2100년 무렵에는 여름철 161일, 겨울철은 0일이 돼 겨울철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류찬수 교수는 "광주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장래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남해안에서 참치가 출현하거나 고층에서 밀감이나, 나주에서 한라봉이 자연 상태에서 생산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류찬수 교수는 "광주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장래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남해안에서 참치가 출현하거나 고층에서 밀감이나, 나주에서 한라봉이 자연 상태에서 생산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연평균기온은 지난 76년(1935~2010) 동안 1.6도 상승했으며, 100년 기준으로는 2.1도 상승해 지구평균(0.74도/100년)의 3배에 달했다.



축축한 봄비 경칩인 5일 광주 지역에 10mm 인퓌의 축축한 봄비가 내렸다. 전남대 학생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캠퍼스에서 새싹이 돋은 버드나무 길을 우산을 든채 걷고 있다.

광주 '치유의 숲' 만든다

북구 망월동 6만1368㎡ 5월부터 식수

일상에 지친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치유의 숲'이 광주 외곽에 조성된다.

5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석곡동 주민센터 인근 망월동 6만1368㎡에 여가복지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북구는 설계가 끝나는 올해 5~6월 사이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먼저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 탄소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심는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공간 내 산책로 조성, 전망대 및 체육기구,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 근교의 산림욕 장소로 각광받는 새 휴식처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10~15년의 장기플랜과 함께 녹지조성사업을 진행중"이라며 "광주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10~15년의 장기플랜과 함께 녹지조성사업을 진행중"이라며 "광주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국립나주병원

학생정신건강 증진 협약

전남도교육청은 학생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5일 국립나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발달 등에 대한 지원 등 정신건강의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우울증과 학습장애, 폭력 가해·피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살정후 등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검사, 상담, 치료 지원 등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기는 인성 토대가 되는 자아 정체성 등이 확립되는 시기로 정서와 행동발달 문제 등을 조기발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사업에 착수했다.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a map of Korea with regional weather icons, and a table of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Gyeongju, and Jeonju.

주5일 수업 악용 불법학원 집중단속

교과부·시도교육청 합동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발맞춘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석달 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속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석달 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석달 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달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

동네의원 가문 진료비 싸진다

다음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행정고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의원을 찾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이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Don't you say you can't hear well?) featuring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with various models and prices.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Free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China, Europe, and Hawaii,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and legal notices for the travel agency.